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5 / 2008.2.15

□ IEA, '08년 OPEC의 원유생산능력 증가 전망

- IEA는 '08년 OPEC의 원유생산능력이 84만 b/d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.
 -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가 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충당하게 될 것이며, 각각 40만 b/d, 32만 b/d를 증산할 것으로 예상됨.
 - 사우디아라비아는 Khursaniyah 및 Shaybah 유전의 원유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임.
- 2월 1일 정례회담에서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OPEC의 잉여생산능력은 3백만 b/d에 이름.
 - 이 중 사우디의 잉여생산능력은 175만 b/d이며, 나이지리아와 UAE가 각각 41만 b/d, 26만 b/d를 차지함.
 - OPEC의 잉여생산능력은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2/4분기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 경우 원유가격이 배럴당 \$80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OPEC이 생산량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음.

(Bloomberg, 2008.2.13)

NEWS

- IEA, '08년 OPEC의 원유생산능력 증가 전망
- 아제르바이잔, 그루지아·터키 가스 수출 가격 인상 계획
- 뉴욕시, '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30% 감축 계획 시사
- 베네수엘라, Petrocaribe 동맹국들에 석유 수출 지속 약속
- 오만 새로운 가스전 발견
- 에너지부문의 기업 인수합병 거래액 증가
- 프랑스의 풍력발전 설비 규모 증대
- 스위스 EGL, 가스관 건설 예정
- 앙골라, \$40억 규모의 LNG플랜트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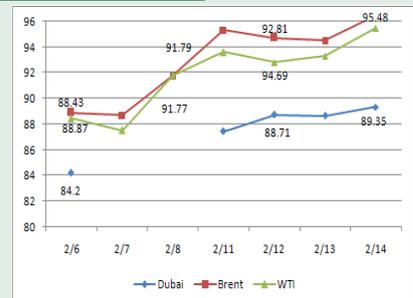
ANALYSIS

- 석유산업 호황과 불안요소
- 석탄소비,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
- 유럽, 환경정책 및 규제 심화에 따라 에너지 위기 직면
- 서아프리카의 바이오연료 생산 증대

REPORT

-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 전망 보고서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

ASIA, AMERICA & MIDDLE EAST

□ 아제르바이잔, 그루지아·터키 가스 수출 가격 인상 계획

-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이 그루지아와 터키에 대한 가스수출 가격을 인상할 계획임.
 -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그루지아에 대한 가스수출 가격을 1,000m³당 현재의 \$120에서 \$180~200로 인상할 것임.
 - 그루지아는 연간 10억~15억 m³의 가스수입을 원하고 있지만, 아제르바이잔은 자국의 가스 생산 상황에 따라 수출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.
 -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터키로 수송하는 가스에 대한 요금인상 협상을 하고 있으며, 1,000m³당 \$120의 현재 가스가격을 세계시장 가격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.
- 아제르바이잔의 가스수출 가격인상 계획은 작년 말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들에 수출하는 가스가격을 인상한 후 나온 것임.

(AP, 2008.2.12)

□ 뉴욕시, '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30% 감축 계획 시사

- 뉴욕 시장은 환경관련 UN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세 도입 등 미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면서 뉴욕시는 '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30% 줄일 계획'이라고 밝힘.
 - 현 부시 행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, '교토 의정서'를 받아들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뉴욕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해 기존 택시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고, 혼잡세를 도입하며, 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, 향후 10년 내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힘.
 -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20%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의 삼림벌채 문제에 대해서, 공원벤치와 소규모 선착장, 해수욕장 보도목, 목재다리 등에서의



사용을 다른 재료로 대체함으로써 수입목재를 20% 이상 감소할 것임.

(www.earthtimes.org, 2008.2.11)

□ 베네수엘라, Petrocaribe 동맹국들에 석유 수출 지속 약속

- PDVSA는 최근 Exxon Mobile과의 분쟁 관련, Petrocaribe 동맹국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.
 - 최근 베네수엘라의 국유화 정책으로 인해 오리노코의 Cerro Negro 유전 개발에서 철수하게 된 Exxon Mobile이 법원에 제소하여 PDVSA 해외 자산 \$120억 동결허가를 받은 바 있고, 이에 베네수엘라는 원유판매 중단 등의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음.
- '05년 6월 베네수엘라가 인근 카리브국가에 원유 지원을 위해 출범시킨 Petrocaribe 동맹은 현재 53,000 b/d를 회원국에 수출하고 있으며, 수혜국들의 저장시설이 확충되면 10만 2,000 b/d까지 증대할 계획임.
 - ※ Petrocaribe 동맹은 최근 가입한 온두라스와 Antigua and Barbuda, 바하마, 벨리즈, 쿠바, 도미니카, 그라나다, 가이아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니카라과, 도미니카 공화국, St. Kitts and Nevis, 세인트빈센트그리나딘, St. Lucia, 수리남, 베네수엘라 등 1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음.

(EFE, 2008.2.13)

□ 오만 새로운 가스전 발견

- Petroleum Development Oman(PDO)은 오만 중부의 Saih Nihayda 가스전 인근의 Budour 유전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발견함.
 - ※ PDO는 오만 석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, Royal Dutch Shell이 34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.
- 동 유전은 PDO社의 가스처리플랜트 인프라시설과 인접해 있으며, 원활한 국내가스공급을 위해 조만간 수송관 연계 사업을 시행할 것임.
- '08년 오만 석유생산은 '07년 대비 5.5% 증가된 79만 b/d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재정수입에서 석유가스부문이 78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.

(www.omanet.om 2008.2.11)



EUROPE & AFRICA

□ 에너지부문의 기업 인수합병 거래액 증가

- '07년 에너지부문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액은 금융시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, '03년 \$430억 대비 9배 증가하였음.
 - 인수합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유럽지역의 거래액은 \$1,906억에 달함.
 - PWC에 따르면, 유럽의 역내 전력 및 가스시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가 간의 기업 인수합병으로 이어짐.
- '07년 전력부문의 기업 인수합병 거래액은 '06년 \$734억 대비 3배 증가한 \$2,088억이었으나, 가스부문은 '06년 \$825억 대비 77% 하락한 \$242억임.
 - 대규모 거래의 감소가 그 원인으로, \$200억이 넘는 계약이 '06년에 4건이었던 데 비해 '07년에는 2건에 불과하였음.

(Europétrole, 2008.2.9)

□ 프랑스의 풍력발전 설비규모 증대

- 프랑스의 풍력발전 능력은 '07년 900 MW가 증대되어 총 2,455 MW를 기록하였는데, 이는 독일과 스페인에 이어 유럽의 3번째 규모임.
 - 풍력발전량은 2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재생에너지 원의 3%를 차지하며, 프랑스의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구성 비율은 10.3%임.
 - 향후 프랑스의 풍력발전은 육상 21,000 MW와 해상 4,000 MW로 총 25,000 MW로 확대되어 총 전력공급에서 9~10%의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임.
- Grenelle 환경기구는 '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2,000만 toe로 늘릴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으며, 이 중 풍력발전량은 400만 toe를 차지함.
- 세계 총 풍력 설비용량은 '07년에 94 GW 였는데 미국과 스페인, 중국의



설비증대로 1년 사이 31%가 증가하였고, '07년 시장 규모는 250억 유로에 달함.

- 현재 설비용량 규모는 독일이 22.3 GW로 1위이며 미국 16.8 GW, 스페인 15.1 GW, 인도 8 GW, 중국 6.1 GW의 순서임.

(AFP, 2008.2.11)

□ 앙골라, \$40억 규모의 LNG플랜트 건설 예정

- Chevron과 앙골라 국영석유기업 Sonangol은 LNG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.
 - 동 LNG 플랜트에 공급될 가스는 수반가스전으로부터 조달될 것이며, 이에 따라 가스플레어링을 막고, 수반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임.
 - ※ 동 컨소시엄은 Chevron의 자회사인 Cabinda Gulf Oil Company(36.4%)과 Sonangol 자회사인 Sonagas(22.8%), BP(13.6%) Enl(13.6%), Total(13.6%)로 구성됨.
- LNG 플랜트는 Soyo시 인근 해안에 건설될 예정이며, 연간 생산능력은 520만 톤임.
 - '12년 1/4분기 중 완공될 예정이며, 앙골라 해상가스전 4개의 광구에서 약 2,831만m³/d의 가스가 공급될 것임.
 - 동 컨소시엄을 통해 약 3,539만 m³/d가 앙골라 국내로 공급될 예정이며, 나머지는 미국 Mississippi에 위치한 Gulf LNG의 재가스화시설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공급될 것임.

(African Business, 2008.2.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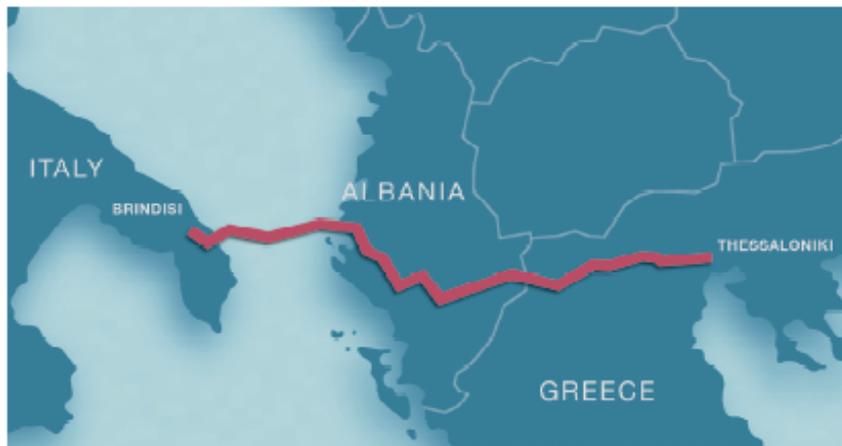
□ 스위스 EGL, 가스관 건설 예정

- 스위스 EGL은 노르웨이 StatoilHydro와 아드리아 해를 가로지르는 115 km의 가스관 건설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함.
 - EGL은 동 프로젝트에 총 15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, '09년에 착공하여, 이르면 '11년부터 가스관이 운영될 예정임.



- Trans Adriatic Pipeline(TAP)은 카스피 해와 중동지역을 통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임.
 - TAP는 그리스 및 알바니아와, 아드리아 해, 이탈리아 남부 Puglia으로 이어지는데, 건설예정인 가스관은 유럽-아시아를 잇는 해상 구간임.
 - TAP의 수송 예상량은 연간 약 100억 m³이며, 200억 m³까지 증대될 예정이다.
- EGL은 이번 프로젝트에 기타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, 가스공급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.
 - Gazprom과의 협력가능성은 배제하였는데, 대러시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임.

Trans Adriatic Pipeline Route



(AWP, 2008.2.13)



1. 석유산업 호황과 불안요소

□ 개요

- 지난해 세계 석유산업은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석유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함.

□ 세부내용

-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계 석유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으며, 특히 Exxon Mobil은 미국에서, Royal Dutch Shell은 유럽에서 각각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함.
- 그러나 이러한 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신규 매장지 개발 등의 기업운영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.
 - Shell은 '07년 \$276억을 벌어들였으나 이는 유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대비 4.5% 감소한 3.3백만 boe/d에 그쳤으며 대체 매장지 개발에도 최근 4년간 3번째 실패함.
 - Exxon Mobil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지난해 418만 boe/d로 전년대비 1% 감소함.
 - Chevron은 '07년까지 4년 연속 대체 매장지 개발에 실패하였으며, 공급량도 지난해 소폭 감소한 262만 boe/d에 머물고 '08년 생산량 전망도 당초 계획된 280만 boe/d에서 265만 boe/d로 하향 조정함.
-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유가가 '08년에도 지속되어 전년 평균유가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, 미국의 경기침체 파급효과가 유가와 원유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작년과 같은 석유산업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함.
 - WTI 원유 평균가격이 '08년 \$80.76/bbl으로 전년의 \$72.30/bbl에 비해 11.7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석유 메이저사들의 수익은 BP를 제외하면 평균 0.5~6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

※ BP는 '07년 미국 정제시설 문제와 멕시코만 신규유전의 가동지연으로 수익이 둔화되었으나 '08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며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하류부문에서는 세계 정제시설 증설로 정제마진이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제시설은 '10년까지 100만 b/d 증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제산업의 호황도 끝날 것으로 보임.

□ 시사점

- 현재 석유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세계 석유산업의 질적 성장 실패는 현 수준의 유가 상승세를 장기화 시킬 수 있는 요인임.
- Shell 및 Chevron과 같은 주요 기업의 자원개발 실패사례는 위험요소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교훈으로 활용해야 함.

(Petroleum Intelligence Weekly, 2008.2.11)

2. 석탄소비,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

□ 개요

-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석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매장량 등으로 기록적인 소비 증가세를 보이면서 석탄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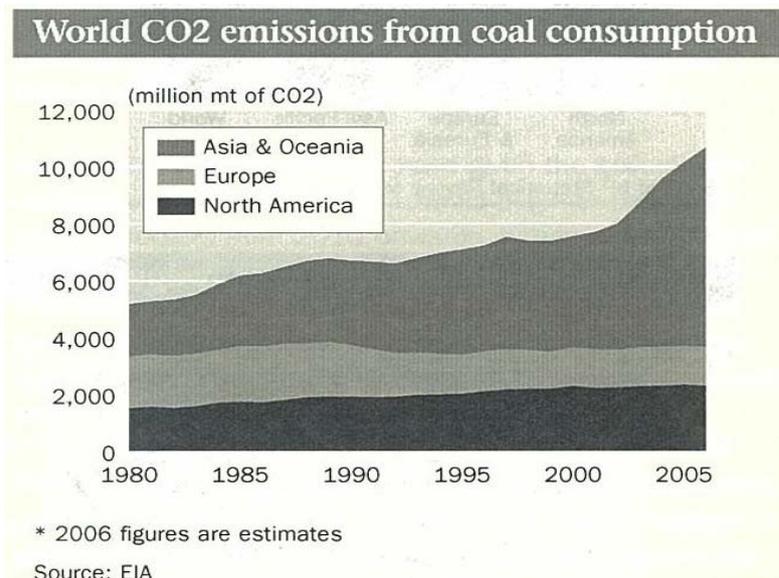
□ 세부 내용

- 세계 석탄가격이 최근 1년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.
 - 콜롬비아 석탄은 \$49.50/톤에서 \$67.50/톤, 남아프리카 석탄은 \$49.25/톤에서 \$68/톤으로 인상되었고, 아태지역에서 거래되는 호주 석탄가격은 전년대비 68% 상승한 \$75/톤을 기록함.
- '06년 세계 석탄소비 증가율은 4.5%로 인도와 중국이 전체 소비량의 8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아태지역의 석탄 소비는 90%, 생산량은 80%



증가했음.

- 석탄 생산량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,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함.
 - 인도의 석탄 수입량은 '06년 3,120만 톤에서 '07년 4,80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, 인도의 향후 5년간 예상 경제 성장률은 연 평균 9.7%로 높은 석탄 소비 증가가 예상됨.
 - 중국의 '07년 석탄 수입량은 전년대비 51.7% 상승한 3,499만 톤을 기록했으며, 중국의 '07년 전력생산은 16.3% 상승한 2,086 TWh로 석탄 발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이 17.5% 증가하였음.
 -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석탄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설 것을 예상함에 따라 '15년까지 석탄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음.
 - 세계 최대 석탄수출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'10년부터 석탄수출을 연간 1억 5천만 톤 이내로 줄일 계획임.
- 석탄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OECD국들에서 아시아국들로 이전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추세임.



- 중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현재의 기후변화는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며,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퇴치가 개도국들에게는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임.



- 그러나 중국 및 아태지역 국가들이 석탄에 기반을 둔 개발에만 치중한다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음.

□ 시사점

-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풍부한 매장량과 저렴한 에너지원인 석탄은 향후 아태지역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따라서 석탄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 등의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활발히 추진해야 함.

(Energy Economist, 2007.11.)

3. 유럽, 환경정책 및 규제 심화에 따라 에너지 위기 직면

□ 개요

- 에너지 기업들은 EU의 환경정책 및 규제로 인해 에너지부문 신규투자 계획이 무산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유럽은 에너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※ EU가 '08년 1월에 발표한 신에너지 정책에 따르면, EU는 '13년부터 배출권 할당제를 폐지하고 경매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음.

□ 세부 내용

- 유럽은 향후 25년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1.5조 파운드의 투자가 필요하지만, 최근 에너지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발전시설 투자 계획을 취소하고 있음.
 - 유럽은 '30년까지 520 GW 규모의 신규발전 설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,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해 석유 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'60년대에 비해 두 배 증가하였음.
 - 현재 정책을 고수할 경우 '30년까지 EU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70%에 이를 전망이다.



- E.ON은 '13년부터 기업들이 모든 배출권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, 투자 계획 승인을 지연시키는 등에 대해 EU 집행위를 비난함.
- 반면, EU는 배출권 경매제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, 효과적인 규제체제를 구축하고 저탄소 혹은 무탄소 배출 시설 건설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.
 - 영국 정부 역시 에너지 관련 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, 정부의 요구에 맞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시사하였음.
 -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신규투자,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시사점

-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에 EU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유럽 지역에 전력부족 사태가 야기될 수 있음.
- EU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감소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확대, 청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공동의 에너지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(Guardian, 2008.2.7), (WEC, 2008.2.7)

4. 서아프리카의 바이오연료 생산 증대

□ 개요

- 지난 11월, 부르키나파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300여 명의 아프리카 및 유럽, 미국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서아프리카의 화석연료 고갈에 유일한 대안은 바이오연료 생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.

□ 세부내용



-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화석연료는 고갈되기 시작하였고,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함.
 - 스페인 International Ingermas는 기니에 1억 5,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10만 헥타르에 자트로파를 재배하는 계약을 체결함.
 - 또한 프랑스 Agro-Energie Développement은 지난 12월에 기니정부와 1억 5,000만 유로 규모의 바이오연료 생산 협약을 체결함.
- 세네갈과 가나, 나이지리아는 국가차원의 바이오연료 전략을 수립하였으며, 바이오연료 부문의 정책 실행과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위한 법 제정, 바이오알콜 및 바이오디젤 부문의 단·중기적 개발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를 설립할 것임.
 - 나이지리아는 마니옥 및 사탕수수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함.
 - 가나는 바이오연료 부문의 계획을 강화하여, Anuanom Industrial Bio Products Ltd.와 공동으로 자트로파 재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.
- 부르키나파소 및 코트디부아르, 니제르에서는 민간기업이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.
 - 부르키나파소의 DAGRIS 및 SN CITEC은 면실유에서 바이오디젤을 추출하여 경유에 혼합하거나, 기화시켜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음.
 - 코트디부아르의 21st Century Energy는 내수 및 수출을 목적으로 5년 동안 6,500만 Fcfa를 투자하여 사탕수수 및 옥수수에서 연간 35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할 예정임.
 - 니제르의 IBS Agro Industries는 Gaya 지역 4,000 헥타르에서 자트로파를 재배하여 일일 25,000 리터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생산을 한바 있음.
- 자트로파의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는 말리에서는 자트로파에서 추출한 기름이 발전에 사용되고 있음.



- 베냉은 '에너지공급프로젝트(PFSE)'의 일환으로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생산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.
 - 아주까리와 자트로파에서 추출된 바이오디젤은 농업과 수송, 발전부문에 사용될 예정임.
 - 바이오에탄올은 가여수 열매에서 추출되어 대체연료 및 가열에너지로 사용될 것임.

□ 시사점

- 고유가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, 아프리카의 광대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바이오연료의 전략적 공급지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(L'Autre Quotidien, 2008.2.11)



1.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 전망 보고서

□ 개요

-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2월 11일 발표하였음.

□ 세부내용

- 세계 석유수급 전망
 - OPEC은 2월 정례 회담에서 생산량 유지 결정을 내렸으며, 석유소비가 위축되고 1/4분기 재고량이 5년 평균 재고량보다 높을 경우 3월 5일 개최될 정례 회담에서는 감산을 고려할 전망이다.
 - '08년 원유 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, 지정학적 요인, OPEC의 감산가능성, 원유생산능력 변화, 세계 경기호조와 같은 재상승의 위험이 존재함.

세계 석유수급 전망

(단위: 백만b/d)

구분	2007	2008	2009
수요(A)	85.72	87.07	88.48
OPEC 공급(B)	35.44	37.18	36.97
비OPEC 공급(C)	49.25	50.18	51.70
공급(B+C)	84.69	87.36	88.67
재고변동**	-1.03	0.30	0.19

**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- EIA는 '08년 석유소비는 지난해보다 140만 b/d 증가한 8,707만 b/d가 될 것으로 예상함.
- 비OECD 국가의 소비증가분이 100만 b/d를 차지하며, 아시아 개도국 및 중동 지역이 소비증가를 견인할 것임.
-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, 쿠웨이트, UAE에서의 증산에 따라 '08년 1/4분기 OPEC 생산량은 지난 동기 대비 60만 b/d 증가한 3,220만 b/d로 전망됨.



- EIA는 비OPEC 생산량 및 소비 전망을 감안하여 OPEC의 '08년 생산량이 1/4분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.
- 비OPEC의 '08년 석유생산은 전년대비 90만 b/d, '09년에는 160만 b/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비OPEC의 증산량은 러시아의 사할린II, 브라질의 Marlim유전, 아제르바이잔의 ACG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예상됨.
- 유가 전망
 - 국제 평균유가는(WTI 기준) '08년과 '09년에 각각 \$86.46/bbl, \$81.67/bbl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미국 석유수급 전망
 - '08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.0% 증가한 2,086만 b/d, '09년에는 1.0% 증가한 2,108만 b/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 - 미국의 '08년 석유생산은 510만 b/d로 전년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, '09년에는 6.2% 증가한 542만 b/d로 예측됨.
 - '07년 10월 생산을 개시한 Atlantis 심해에서의 증산은 알라스카와 Lower-48 생산의 감소분을 상쇄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, '09년 석유생산 증가는 Thunderhorse 및 Tahiti 플랫폼에서의 생산 개시로 인한 것임.
- 천연가스 수급 전망
 - '07년 총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6.0% 증가하였으나, '08년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인해 0.9% 증가한 17억 9,643만 m³/d로 전망됨.
 - 미국의 '08년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2.2% 증가한 17억 9,643만 m³/d를 기록할 전망이다.
 - 이는 멕시코만 심해의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신규건설 및 신규가스전 개발과 Lower-48의 증산에 따른 것임.
 - '07년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35% 증가하였으나, '08년에는 1.8% 증가에 그쳐 223억 1,379만 m³를 기록할 전망이다.



- 미국 LNG 수입 감소 전망은 아시아 및 서유럽의 LNG 수요 강세와 '08-'09년간 신규 LNG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임.
- 천연가스 가격 전망
 - '08년 1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\$8.25/Mcf으로, 이는 지난달에 비해 \$0.9/Mcf 상승한 것임.
 - '08년 및 '09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각각 \$7.83/Mcf, \$7.93/Mcf 가 될 것으로 예측됨.
- 전력 수급 전망
 - '07년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3.0% 증가한 반면, '08년에는 0.4%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.
 - 여름 기온이 높지 않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'08년 상업·산업 부문 전력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- 전력가격 전망
 - EIA는 '08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을 전년대비 1.8% 상승한 10.8 ¢/kWh, '09년에는 2.7% 증가한 11.1 ¢/kWh로 전망함.
- 석탄수급 전망
 - 총 석탄소비는 '08년 11억 3,500만 short ton, '09년 11억 4,20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이다.
 - 석탄소비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부문의 석탄 소비는 가스 화력발전 및 수력발전의 증가로 0.1%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.
 - '08년 석탄 생산은 수요약화로 인해 0.1% 감소한 11억 4,70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시사점

- '08년 원유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, 지정학적 요인, OPEC의 감산가능성, 원유생산능력 변화, 세계 경기호조 등 여러 가지 상승 위험이 존재함.



- OPEC은 세계 석유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1/4분기 재고량이 5년 평균 재고량보다 높을 경우, 3월 정례 회담에서는 감산을 고려할 전망이다.
- 세계 석유 잉여생산능력은 현재의 2백만 b/d에서 '09년 말에 4백만 b/d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EIA는 비OPEC 생산이 '08년과 '09년에 각각 90만 b/d, 150만 b/d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
- 비OPEC의 원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향후 2년간 비OPEC의 증산은 브라질, 미국, 아제르바이잔, 러시아, 캐나다,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질 것임.

(EIA, 2008.2)